부모의 음주정도에 따른 중학생의 음주관련 태도 및 지식 비교

김 남 선 · 권 미 경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 Abstract =

Comparis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s Alcohol consumption

Namsun Kim · Mikyung Kwon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parent's alcohol consumpt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Methods: The subjects were 391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recruited by convenient sampling in July of 2009. Korean version of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K) and questionnaire of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were used as measurement tools.

Results: Ninety-three parents (23.8%) were classified as problematic alcohol users. The students' scores on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alcohol us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whether their parent's alcohol use was problematic or not. Also, in compa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marital relationship, father's level of education, father's drinking frequency, mother's drinking frequency, and the rate of parent's co-living with the childr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udent group with problematic drink parent group, the correlations of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alcohol use was significant ($r=.23$, $p=.034$).

Conclusions: The alcohol use of parents affect the drinking behaviors of their adolescent offsprings. There was weak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alcohol use, therefore, alcohol prevent programs with new strategies focused on promoting proper attitude of children's alcohol use is hoped to be developed in the future.

Key Words: parents, alcohol drinking, attitude, knowledge

서 론

교신저자: 권미경, 강릉시 내곡동 522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전화번호: 033-649-7614, 팩스번호: 033-649-7620
E-mail: mkkwon@kd.ac.kr
원고접수: 2011년 5월 19일, 원고채택: 2011년 7월 12일

그간 청소년 음주는 흡연문제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2010)에서 전국단위의 중

고등학교 학생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제 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21.1%이고, 고위험 음주율은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음주시작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엄광섭(2004)의 연구에 의하면 최초 음주 시기가 초등학교 졸업 이전이 27.1%, 중학교 3학년 이전이 81.7%로 나타나 음주문제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음복문화까지 가세하여 청소년이 알코올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보다 관대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음주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여 음주율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 형편이기도하다(양수 등, 2003).

청소년 음주의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기억력 저하로 학업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부모나 친구, 선생님과의 갈등을 야기하며, 우울증이나 두려움, 혹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됨으로써 폭력 또는 자살 등 청소년 비행이나 건강위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은 성인보다 더 빨리 알코올 의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알코올이 다른 약물이나 비행으로 가는 통로약물(gateway-drug)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건강증진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노혁, 2007).

청소년 음주행위를 다룬 여러 연구들(윤명숙과 조혜정, 2009; 이재경과 정슬기, 2010; Donovan, 2004)은 Bandura (1977)의 사회학습이론을 기틀로 하여 청소년 음주행위 관련요인으로서 부모와 또래 친구요인, 개인요인을 탐색해왔다. 이는 청소년 음주가 개인의 인지 및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또래 친구나 부모와 같은 중요한 사람과 접촉할 때 자연스러운 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일탈적인 행동에 대한 차별적 강화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해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의하는 태도까지 부여받게 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는 대체로 음주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견지하게 되고(Haan

& Thompson, 2003),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일반가정에 비해 알코올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Jacob 등, 2003). 우리나라에서도 공식화된 역학조사는 없으나 청소년 부모의 약 30%가 음주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김옥기와 정원철, 2009) 잠재적으로 자녀의 음주를 조장하고 모델링 및 알코올의 사용을 지지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 음주를 설명하는 개인요인이란 술에 대한 가치, 신념, 기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Donovan, 2004) 특히 음주기대는 음주행위의 전조적 특성을 갖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로 음주에 대한 이전 경험과 올바른 지식 정도에 의해 형성된다(탁영란 등, 2007).

이러한 청소년 음주문제를 다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시작을 예방하는 것이며 특히 문제음주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통한 건강증진 전략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환경인 가정이나 학교 모두 흡연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음주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이며 학교에서도 흡연예방 교육이 음주예방 교육에 비해 더 활발하다는 점(이정숙 등, 2009)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유용성이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청소년 건강증진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인지행동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생활에서 음주 거절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재 프로그램(이정숙 등, 2009)과 같은 시도는 일례라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행위의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지지되어온 부모요인을 고려하여 문제음주 부모 자녀에 대한 환경적, 인지적 요인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청소년의 환경적 요인인 문제음주 부모 여부에 따라 음주기대로 환원되는 음주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초점이 있다. 실제로 부모 음주 및 음주친구 유무와 함께 음주관련 지식과 음주관련 태도는 청소년 음주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된바(양수 등, 2003)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는 달리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기 이전 시기로서 건강행위의 수정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문제 음주 부모를 가진 고위험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하여 음주시작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태도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체이며(김억곤, 2010), 정보의 반복적 제공을 통한 인지력 향상이 태도의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ingh와 Rothschild, 1988)는 가정에 기반한다. 즉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적용된 건강관련 교육은 지식의 축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확립되고, 태도에 따라 건강행위가 이루어진다는(Fredisdorf, 1989) 가설에 근거하여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녀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부모의 음주문제 수준을 토대로 문제음주 부모자녀군과 비음주 부모자녀군을 변별하여 이들의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을 비교하고,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청소년 음주문제에 있어 학교와 가정, 사회적 관계를 배제한 단면적이고 획일화된 음주예방교육은 지양하고, 문제음주 부모를 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음주예방 교육프로그램 제고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문제음주 부모자녀군 중학생과 비음주 부모자녀군 중학생의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을 비교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G시에 소재한 3개 남녀공학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403명

을 설문조사 하였으나 이 중 분석에 부적합한 12명을 제외한 최종 391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중 문제음주부모자녀 선별검사에서 7점 이상인 문제음주 부모자녀군 93명과 0점을 나타낸 비음주 부모자녀군 132명 등 총 22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였는데, 통계 유의수준 0.05, 비교집단의 수 2, 효과의 크기 중간정도 0.25, 통계적 검정력 0.8로 했을 때 한 집단의 필요한 표본의 수가 85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7월1일 부터 17일 까지였으며, 연구자가 해당 학교장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허락을 받았다. 학교사정에 따라 설문조사가 어려운 학년이 있어서 3개 중학교 모두에서 설문조사가 가능했던 2학년들을 대상으로 2개 중학교에서는 각각 3학급을, 1개 중학교에서는 2학급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교실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설문에 앞서 연구목적,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및 연구철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문제 음주 부모 자녀 선별 검사, 음주관련 태도, 음주관련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1) 문제음주 부모 자녀 선별검사

문제음주 부모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Jones (1983)가 개발한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CAST)를 김미례 등(1995)이 한국어판(CAST-K)으로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30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0점이면 비음주 부모, 1~6점은 사회적 음주 부모, 7~12점은 과음주 부모, 13점 이상은 알콜중독 부모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7점 이상의 음주부모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으

로 정의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자녀의 걱정 또는 고통을 측정하는 도구로 내용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들에서 문제음주 부모의 자녀들을 변별하는데 사용되어 왔다(Lease, 2002). 본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 점수 Cronbach's α = 0.9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96 이었다.

2) 음주관련 태도

음주관련 태도의 측정은 김지은(2001)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음주관련 태도 도구를 신경은(2006)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5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3점),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5 문항 중 2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한다. 총점의 점수범위는 15~60점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신경은(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7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8이었다.

3) 음주관련 지식

음주관련 지식의 측정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지은(2001)이 개발한 음주관련 지식도구를 신경은(200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 혹은 '모르겠다'에 응답하도록 하여 정답이면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를 선택하면 0점 처리하였다. 총점의 점수 범위는 0~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경은(2006)의 연구에서 도구의 KR-20(Kuder와 Richardson-20)은 0.7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0.81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과 비음주 부모자녀군으로 나누어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로, 범주형 변수는 대상수와 백분율로 기술하였다. 문제음주 부모자녀와 비음주 부모자녀군간 일반적 특성은 카이제곱 검정,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은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음주관련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는 피어슨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성 적

1. 대상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 정도

문제성 음주 부모 자녀 선별검사를 이용하여 391명의 대상자가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 정도를 분석한 결과 비음주 부모자녀집단 132명(33.8%), 사회적 음주 부모자녀집단 166명(42.5%), 과음주 부모자녀집단 52명(13.3%), 알코올 중독 부모자녀집단 41명(10.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과음주 부모와 알코올 중독 부모 모두 문제음주 부모로 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이에 해당하는 문제음주 부모자녀집단은 93명(23.8%)이었다.

2. 비음주 부모자녀군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간의 음주 관련 태도와 지식 비교

두 군의 음주관련 태도의 문항 평균점수는 비음주 부모자녀군이 32.88 ± 8.27 점으로 중간점수인 37.5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음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으며,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은 36.16 ± 9.26 점으로 중간 정도의 태도를 보였으며 두 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3.03$, $p = .003$). 두 군의 음주관련 지식의 평균점수에서도 비음주 부모자녀군이 4.86 ± 3.71 점,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6.05 ± 3.37 점으로 두 군 모두 중간보다 낮은 지식 점수를 보였으나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41$, $p = .017$) (표 1).

3. 비음주 부모자녀군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의 일반적 특성 비교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대상자의 학교생활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성적, 건강에 대한 지각, 경제상태, 음주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음주 경험에 따라서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와 동거 여부($\chi^2=11.18$,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부부관계($\chi^2=22.85$, $p<.001$), 아버지의 학력($\chi^2=12.11$, $p=.002$), 아버지의 음주빈도($\chi^2=66.60$, $p<.001$), 어머니의 음주빈도($\chi^2=19.4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의 경우 비음주 부모자녀군에 비해 부모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주 횟수가 더 많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더 적었다(표 2-1, 표2-2).

4.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

두 군 전체의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 간의 상관관계는 $r=.12$ ($p=.093$)으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에서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는 $r=.23$ ($p=.034$)로 약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비음주 부모자녀군에서는 음주관련태도와 지식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3).

고 찰

본 연구의 최초 대상자인 391명의 문제성 음주 부모 자녀를 선별한 결과 비음주 부모자녀집단 33.8%, 사회적 음주 부모자녀집단 42.5%, 과음주 및 알코올 중독 부모자녀집단 23.8%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정숙, 권영란과 최봉실(2003)의 연구 결과 과음주 및 알코올 중독 부모가 15.4%인 것과 비교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문제음주 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 지역의 월간 음주율이 69.7%로 전국 평균인 56.7%보다 높은데다가 남녀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서는 높은 음주율을 보이고 있고 음주 빈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강릉시 알코올상담센터, 2009)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0~1점을 비음주군, 6점 이상을 과음주 및 문제음주군으로 분석한 현명선 등(2008)의 연구에서 비음주 부모 40.8%, 과음주 및 문제음주 부모 24.7%을 나타낸 것과는 비슷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문제 음주로 인해 자녀의 음주 시기도 빨라지고 평균 음주량은 증가하며 음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 앞으로 자녀가 문제성 음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윤명숙과 조혜정, 2009; Hung 등, 2009) 자녀의 음주로 인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문제 음주는 가족기능 또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통해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음주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되어(차소영, 2004; Latendresse 등 2008) 부모를

표 1. Differences of Attitude and Knowledge about Alcohol between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and Problematic Drink Parents

(N=225)

Group	n	Attitude		Knowledge	
		Mean±SD	p	Mean±SD	p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132	32.88±8.27	.003	4.86±3.71	.017
students with problem drink parents	93	36.16±9.26		0.40±0.22	

표 2-1. Differences of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and Problematic Drink Parents

(N=225)

Characteristics	Variables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n=132)	students with problematic drink parents (n=93)	p
		n (%)	n (%)	
School life satisfaction	Very satisfied	7 (5.3)	6 (6.5)	.176
	Satisfied	49 (37.1)	22 (23.6)	
	Moderate	50 (37.9)	36 (38.7)	
	Poor satisfied	15 (11.4)	18 (19.4)	
	Very poor satisfied	11 (8.3)	11 (11.8)	
Friendship	Very satisfied	20 (15.3)	21 (22.6)	.109
	Satisfied	69 (52.7)	32 (34.4)	
	Moderate	32 (24.4)	32 (34.4)	
	Poor satisfied	5 (3.8)	4 (4.3)	
	Very poor satisfied	5 (3.8)	4 (4.3)	
Grade	Upper	41 (31.1)	19 (20.4)	.170
	Middle	62 (47.0)	47 (50.5)	
	Lower	29 (21.9)	27 (29.1)	
Health status	Good	90 (68.2)	55 (59.8)	.287
	Moderate	38 (8.8)	31 (33.7)	
	Bad	4 (3)	6 (6.5)	
Economic status	Upper	29 (22)	15 (16.5)	.096
	Middle	101 (76.5)	70 (76.9)	
	Lower	2 (1.5)	6 (6.6)	
Living arrangement	Parents	119 (90.8)	80 (86.0)	.004
	Only father, or mother	11 (8.4)	4 (4.3)	
	Others	1 (0.8)	9 (9.7)	
Alcohol education	Yes	100 (75.8)	72 (77.4)	.772
	No	32 (24.2)	21 (22.6)	
Alcohol drinking experience	Yes	55 (41.7)	42 (45.7)	.554
	No	77 (58.3)	50 (54.3)	

*missing data exclude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에 음주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문제 뿐 아니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음주 부모 자녀군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은 부모의 부부관계, 부모의 음주 빈도, 아버지의 학력,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은 부모의 부부관계가 나쁘다고 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음주는 자녀에게 해로운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여

비기능적 가족관계를 초래하는데 특히 부부갈등은 문제 음주자의 두드러진 특성이며 이런 부부갈등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녀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Erel & Burman, 1995). 따라서 부모의 음주는 가족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가 줄어들어 자녀의 음주 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은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적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가족의 경우 부모의 별거

표 2-2. Differences of Parents'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and Problematic Drink Parents

(N=225)

Characteristics	Variables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n=132)	students with problematic drink parents (n=93)	p
		n (%)	n (%)	
Parent's marital relationship	Very good	52 (39.7)	14 (15.2)	<.001
	Good	52 (39.7)	35 (38.1)	
	Moderate	19 (14.5)	29 (31.5)	
	Bad	5 (3.8)	8 (8.7)	
	Very bad	3 (2.3)	6 (6.5)	
Father's education	College	102 (79.1)	53 (57.6)	.002
	High school	23 (17.8)	35 (38.0)	
	Middle school	4 (3.1)	4 (4.4)	
Mother's education	College	71 (55)	43 (48.3)	.572
	High school	53 (41.1)	43 (48.3)	
	Middle school	5 (3.9)	3 (3.4)	
Father's drinking frequency	No drinking	63 (48.1)	10 (10.9)	<.001
	1/month	20 (15.3)	5 (5.4)	
	2-3/month	29 (22.1)	18 (19.6)	
	2-3/week	15 (11.4)	39 (42.4)	
	4/week over	4 (3.1)	20 (21.7)	
Mother's drinking frequency	No drinking	88 (67.2)	47 (51.7)	.001
	1/month	23 (17.5)	15 (16.5)	
	2-3/month	19 (14.5)	15 (16.5)	
	2-3/week	1 (0.8)	9 (9.9)	
	4/week over	0	5 (5.4)	

*missing data exclude

표 3. Correlations of Attitude and Knowledge about Alcohol in Two Group (N=225)

Variables	students with non-drink parents (n=132)	students with problematic drink parents (n=93)
	Knowledge	Knowledge
Attitude	-.01 (.935)	.23 (.034)

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는 현명선 등(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음주관련 태도 점수는 비음주 부모자녀군이 32.88 점,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36.16점으로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의 음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는데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정은(2006)의 연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음주 태도 점수가 34.9점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비음

주 부모자녀군은 음주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으나 문제음주부모자녀군은 더 긍정적이었다. 이는 부모 중 음주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음주관련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결과들(김남초 등, 2003; 양수 등, 2003)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음주행위는 음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신수미와 손애리, 2008)과 함께 음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실제 음주비율이 높으며(이재천과 손애리, 2004)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학생의 음주행위에 결정적인 변수라는 서경현과 양승애(2010)의 연구결과를 볼 때 앞으로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에서 음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관련 지식 점수를 보면, 비음주 부모자녀군이 4.86점,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6.05점으로 두 군 모두 음주에 대한 지식정도는 낮은 편이었다. 이는 두 군 모두 음주에 관한 교육 경험이 7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어 현재 중학생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관련 지식 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경은(2006)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음주 지식 점수가 4.6점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지식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신경은(2006)의 대상자가 음주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가 78.9%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임에도 불구하고 중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

두 군을 비교하였을 때,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의 지식 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부모의 잦은 음주를 보고 성장하면서 음주 관련 자국이 많고 간접 경험으로 취득된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간의 상관관계에서도 비음주 부모자녀군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음주관련 지식이 많을수록 음주관련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에 대한 지식이 중학생의 문제음주, 금주의도, 음주 충동을 예측하지 못했듯이(서경현과 양승애, 2010) 음주관련 지식이 많다고 음주관련 태도가 부정적인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 빈도가 잦은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가정환경은 음주관련 지식과 상관없이 음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지식의 축적은 올바른 태도를 유도하며 태도에 따라 건강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이론에 상반되는 결과를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기에 향후 청소년 초기 중학생들의 음주관련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음주예방교육 중재시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주관련 태도에 영향하는 변인들을 규명하여 대응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소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해결 전략으로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함께 문제 음주를 유발하는 제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접근하는 맞춤형 문제해결 중재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음주 정도에 따라 문제음주 부모자녀군과 비음주 부모자녀군을 분별하고 두 군의 음주관련 태도와 지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23.8%가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음주관련 태도는 비음주 부모자녀군에 비해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음주관련 지식에서도 문제음주 부모자녀군이 비음주 부모자녀군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음주에 대한 태도와 지식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음주의 정도에 따라 중학생의 음주태도와 지식에 차이를 보여 부모의 음주는 자녀의 음주에 대한 태도나 음주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으며 음주관련 지식은 음주관련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초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음주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더 나아가 문제음주를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음주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부모의 음주가 자녀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정

서적 영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음주 부모 자녀 선별검사 도구가 타당도 및 신뢰도가 높은 도구이기는 하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음주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모의 음주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는 부모가 직접 음주정도를 기록하여 두 군을 분류하고 음주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본 연구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음주 문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요인을 조사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학령전기를 비롯한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릉시 알코올 상담센터. 강릉시 지역사회 음주실태와 대응전략. 강릉시 보건소, 2009
- 김익곤. 지식조각이 사람 도식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010;7(1):19-35
- 김지은. 고등학생을 위한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서울, 2001:56-60
- 김미례, 장환일, 김경빈. 한국어판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AST-K)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5;34(4):1182-1192
- 김남초, 양수, 박호란, 송경애, 이소영 등. 청소년 음주에 대한 부모의 인식 태도. 정신간호학회지 2003;12(1):56-64
- 김옥기, 정원철. 부모의 알코올중독이 고교생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09;9:183-203
- 노혁.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서울, 2007
- 서경현, 양승애. 중학생의 음주지식 및 태도와 음주행위 요인간의 관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0;11(1):15-26
- 신경은. 음주예방 프로그램이 실업계 여고생의 음주관련 지식, 태도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수미, 손애리. 전국 중학생의 음주실태, 지식 및 태도.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8;9(1):13-26
- 양수, 송경애, 조선진. 고등학생의 음주관련 지식 및 태도와 음주행위의 영향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03;12(4):463-471
- 엄광섭. 청소년의 음주관련 요인이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윤명숙, 조혜정. 부모의 문제음주가 청소년자녀의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09;32:248-284
- 이재청, 정슬기.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음주 영향요인의 경로분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010;34:124-153
- 이재천, 손애리. 중학생의 음주와 사회심리적변수와와의 관련성 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04;5(1):29-48
- 이정숙, 권영란, 최봉실. 부모의 음주문제 정도에 따른 중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의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2003;12(4):503-511
- 이정숙, 김수진, 권영란. 청소년 흡연과 음주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09;18(2):105-115
- 질병관리본부. 제 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질병관리본부, 2010
- 차소영. 부모의 음주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탁영란, 윤이화, 안지연. 초기청소년의 음주경험, 음주지식, 음주기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007;37(1):35-43
- 현명선, 남경아, 김명선. 부모의 문제음주 행위와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2008;17(4):392-402
-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e, N.Y., 1977
- Donovan, JE. Adolescent alcohol initiation:A review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004;35(6):7-18
- Erel, O., Burman, B.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95;118(1):108-132
- Fredisdorf, M. Alcohol and drug abuse prevention in Wisconsin public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1989;59:21-24
- Haan, L., Thompson, KM. Adolescent and adult alcohol attitudes in a high alcohol consumption community. Journal of Drug Education 2003;33(4):399-413
- Hung, C., Yen, LL., Wu, WC. Association of parents's alcohol use and family interaction with the initiation of alcohol use by six graders:a preliminary study in Taiwan. BioMedcentral Public Health 2009;9:172.
- Jacob, T., Waterman, B., Heath, A., True, W., Buchol, KK., et al. Genet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n offspring alcoholism:New insights using an off-

- spring of twins desig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03;60:1265-1272
- Johnes, JW. The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and test manual. Camelot Unlimited., Chicago, 1983
- Lease, SH. A model of depression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Journal of Counselling and Development, 2002;60:441-451
- Latendresse, SJ., Rose, RJ, Viken, RJ., Pulkkinen, L., Kaprio, J. et al. Parenting mechanism in links between parent and adolescent's alcohol use behavior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008;32(2):322-330
- Singh, SN., Rothschild, ML. Recognition as a measure of learning from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88;20:235-248

K C I